

네팔 대지진 : 일 년 후 Nepal Earthquake: One Year On

“지진이 발생한 후, 네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옥스팜이와서 우리 마을을 돕기 시작한 이후, 그리고 지금, 지역 여성들은 자신들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말라 발라미(Bimala Balami), 카투만두(Kathmandu) 계곡에서 진행되는 옥스팜 캐쉬 포 워크 (Cash For Work) 프로그램 (단기 고용을 통한 현금지급 프로그램) 참가자

지난 2015년 4월 25일, 7.8 규모의 강력한 대지진이 네팔을 강타했습니다. 2주 후 또 다른 강진이 닥쳤습니다. 이로 인해 약 9,0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약 850,000 채의 집이 파괴되고 손상되었습니다. 뒤이어 400회 이상의 여진이 발생하여 피해가 극심했던 지역 주민들에게 두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첫 번째 지진이 발생한지 몇 시간 후, 현지 옥스팜 구호팀은 피해가 가장 심했던 사람들에게 먼저 긴급구호물품을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옥스팜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데에는 비상시를 대비한 구호물품들의 재고와 현지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 그리고 재난에 대비한 긴급구호활동계획 등이 크게 기여했습니다. 여러분과 많은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지진 후 첫 3개월 동안 네팔의 극빈층인 약 300,000 명에게 긴급구호물품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깨끗한 식수, 위생키트, 임시화장실, 피난처 및 긴급식량 등의 긴급구호물품이 지진 후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6개월 후,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는 가운데 여러분의 지원은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로 하여금 새 삶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파괴되고 손상된 집 뿐만 아니라 상점과 사업장 또한 지진으로 인해 타격을 입어, 현지인들의 일자리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일 년 후에도 많은 사람이 직업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고 직장이 있는 사람은 지진 이전보다 수입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옥스팜은 즉각적으로 긴급한 필요들에 대처했고, 개인과 가정에 생계유지를 위한 수입창출의 기회를 마련했으며, 현지의 경제부흥에 박차를 가하고 지역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 출석을 장려하기 위해 식수시설과 하수시설을 수리하고, 여성들을 위해 분리된 화장실과 세면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12개월 동안 네팔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 7곳에서 이루어진 **옥스팜의 긴급구호로 인해 480,000 명 이상의 이재민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방한시설 및 피난처 제공, 지역사회 재건, 여자아이들을 다시 학교로 보내고 생계를 복원하는 일은 옥스팜의 재건, 복구활동 중 몇 가지일 뿐입니다. 옥스팜은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필요까지 네팔 복구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네팔 정부와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월동 구호 물품 및 피난처 키트가 수도 카투만두(Kathmandu)에서 37km 떨어진 마단푸어(Madanpur)에 거주하는 807명에게 배급되었습니다. 마단푸어(Madanpur)는 여진으로 인해 참혹한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옥스팜은 지진 이전에는 이 지역에서 활동하지 않았지만, 지진 이후부터는 이 곳에서 식수시설과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위생물품 등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캐쉬포워크(Cash For Work) 프로그램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진 잔해 제거 및 파괴된 관개수로 공사, 쌀 종자 및 야채 등의 배급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진: Kieran Doherty / 옥스팜



신속한 대응

옥스팜은 네팔 정부, 지역 파트너 기관들, 그리고 네팔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들과 협력하면서, 지진이 일어난 3일 만에 임시 피난처를 제공했습니다.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각 가정의 지붕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겨울을 대비하여 피난처의 방한을 위해 방수천, 담요, 매트 및 보온 물통을 공급했습니다. 약 50,000개의 임시 피난처(천막으로 된 임시 피난처)와 9,000여 개의 개선된 피난처(강형 철판으로 이루어진 피난처)가 세워졌고, 혹한의 겨울을 대비할 수 있도록 12,000여 명의 피해자들이 월동구호물품을 제공받았습니다.

14개 피해 지역의 수도 시설이 절반 이상 손상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약 220,000 개의 화장실이 손실되었습니다. 옥스팜은 지역 파트너 기관들과 함께 40,000여 개의 가구에 위생물품을 제공하고 약 5,000 개의 임시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총 159개의 수도 시설이 재건되고 설치되었습니다.

옥스팜의 긴급구호 대응으로

48만 1,900명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 49,978개의 임시 피난처 제공
 - 40,027명에게 위생물품 제공
 - 14,104개의 가구가 캐쉬포워크(Cash For Work) 프로그램에 참여
 - 4,941개의 임시화장실 설치
 - 12,045개의 월동구호물품 제공
- (*2016년 2월 29일 기준)

대지진 피해주민 마마타 카르키(Mamata Karki)는 “처음에는 하늘에서 비행기가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위를 쳐다보았는데 나무들이 전부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땅도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마을 쪽을 돌아보았는데 마을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온통 먼지였어요. 그때 생각나는 건 제 아이뿐이었어요.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닥치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밖에 나지 않았어요.

강 건너편으로 가고 싶었는데 땅이 너무 흔들려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제 시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제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때의 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전부 꿈인 것만 같아요. 끔찍한 악몽을 꾸는 것 같아요.”

사진: Kieran Doherty / 옥스팜



소수를 위한 목소리

옥스팜은 지진 생존자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15년 10월, “재건으로 더 견고해지는 네팔(Rebuilding a More Resilient Nepal)”이라는 정책서에 재건과 복원을 위한 주요 권장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정치인, 방송 및 지역 사회 대표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중요한 의제를 위한 회의들이 개최되었습니다.

한 달 후,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국무총리가 영국을 방문하였을 때 옥스팜은 인도 국경선에서 일어나는 분열로 인해 생긴 연료 위기 때문에 네팔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도주의 프로그램이 2주 안에 완전히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더 큰 비상사태를 막기 위해 옥스팜은 네팔정부와 인도정부가 신속히 이 위기를 해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인도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석유가 증가했고 모든 주유소에서 연료 배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견고하게 재건하기

지난 6개월 동안 옥스팜은 지역사회를 재건하고, 생계를 복원하여 네팔 주민들이 지진에 준비된 더 나은 모습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습니다. 비말라(Bimala)씨, 네트라(Netra)씨, 그리고 상기타(Sangita)씨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후원이 어떻게 이러한 신속한 복구를 가능케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재건하기

카투만두 계곡에 있는 다치 네칼리(Dachi Nkali) 자치체에 살던 비말라 발라미(Bimala Balami)씨는 지진으로 인해 집이 무너지면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비말라(Bimala)씨 (오른쪽 사진)는 회상합니다.

“정신이 완전히 마비됐어요.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죠. 제 아이 생각밖에 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제 아이를 지키고 싶었어요.”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 때문에 산 경사지에 경작하던 벼, 밀, 겨자, 완두, 오이 및 각종 채소 농사와 관개 수로가 파괴되었습니다. 관개 수로 없이 수확물을 재배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옥스팜은 30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그룹들을 고용하여 15일 동안 새로운 관개 수로를 설치했습니다. 그중의 몇몇 여성들은 관개 수로가 비옥하게 할 토지의 주인들이었습니다. 비말라(Bimala)씨도 새로운 관개 수로 설치작업에

참여한 여성입니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좋습니다. 저희 마을 전체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밭 경작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관개 수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저와 저희지역 주민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할 거예요.” 비말라(Bimala)씨처럼 지진 후의 삶을 재정비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캐쉬포워크(Cash For Work)프로젝트는 재해민들이 지역사회에 무너진 곳을 재건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지역에 **25개의 캐쉬포워크(Cash For Work)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진 잔해 제거 및 대로 공사 같은 일로 **600여명의 주민들이 옥스팜과 함께 재건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옥스팜의 구호활동으로 **약 15,000 가구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진: Kieran Doherty / 옥스팜

생계 복원하기

옥스팜은 피해민들에게 현금바우처를 제공하여 그들이 농사, 소상공업 및 텃밭을 다시 시작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긴급생계지원 프로그램은 네트라 파라줄리(Netra Parajuli, 아래 사진)씨 같은 상인들에게는 매우 고마운 일입니다. 그는 지진 이전에 라모상구(Lamosanghu)에서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재난으로 인해 그의 생계는 수천 명의 다른 피해자들처럼 무너져버렸습니다. 네트라(Netra)씨는 어렵게 회수한 자본으로 임시 상점을 열었고, 옥스팜의 현금바우처 프로그램 덕분에 사업을 다시 키워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진: Kieran Doherty / 옥스팜



“배급되는 바우처 덕분에 약 900명의 손님들이 저희 가게에 왔어요. 제일 많이 팔리는 상품은 쌀이고, 다음은 팥이, 그리고 물뿌리개였어요. 그들의 파손된 도구는 제가 수리해주었고, 팥이도 제가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옥스팜은 주민들이 농기구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장당 2,000 루피 (약 23,000원) 되는 **바우처를 6,000개 이상** 제공했습니다. 이 바우처는 주민들이 텃밭과 밭에서 농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네트라(Netra)씨 같은 자영업자, 상인들을 지원해서 지역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지역사회에 가축과 곡물 저장을 지원할 더욱 광범위한 현금지급 프로그램이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여자아이들을 다시 학교로

지진의 피해는 거주지, 물공급 시설 및 주요 인프라 뿐만 아니라 교육 기관에도 피해를 주어 많은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기타 파리아(Sangita Pariyar, 아래 사진)와 그녀의 친구들은 옥스팜에서 제공한 물과 위생시설을 갖춘 임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학생들을 위해 분리된 화장실과 세면 시설이 있고, 위생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학생들은 학교 오는 것이 더욱 즐거워졌습니다.

“지진 이후 모든 것이 파괴되거나 손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수업을 받기 위해 새로운 곳으로 학교를 옮겼습니다. 이전 학교 화장실에는 문이 없었는데, 이곳에는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이 있어서 지금 다니는 새 학교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스팜은 고르카(Gorkha) 지역의 임시학교들에 물과 위생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특히, 차팍항얀(Chapabhangyan)에 위치한 상기타가 다니는 이 학교는 전교생 300명으로, 지진으로 인해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에 옥스팜은 새로운 물 공급 시설과 남녀 구분된 임시화장실을 설치했고, 위생물품과 옥스팜 워터버킷, 정기적인 위생 수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학교가 재건되고 있는 가운데 옥스팜은 지속적으로 여학생들에게도 동등한 교육의 권리가 주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후원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 덕분에 옥스팜은 지역주민, 현지 파트너,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네팔 재건 사업에 힘쓸 수 있었습니다.

사진: Kieran Doherty / 옥스팜

